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8. 29 | 통권 제51호(2014-03) |

201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2014년 하반기 전망*

[요약]

- 2014년 상반기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97천 명 증가하였으나 2014년 2월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둔화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중심의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였으며, 취업자 상승에 힘입어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함.
- 최근에는 여성 20대 연령층 중심으로 청년층에서 고용률 회복이 관측됨.
- 제조업 고용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고용을 주도해 왔던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됨.
- 우리 경제는 2014년 상반기 중 3.8% 성장하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3.8%의 성장률이 전망됨
- 2014년 취업자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후행적 반응으로 연간 474천 명이 증가(1.9%)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은 「201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동향분석팀(2014),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2014년 상반기 취업자 수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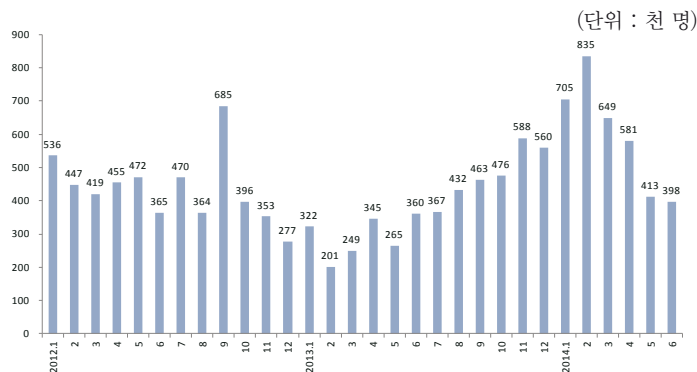
- 2014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97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10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이어가며 2014년 2월 835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함.
 - 그러나 세월호 여파와 민간소비 둔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상황임.
-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취업과 실업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시장 밖의 인구인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감소함.

고령층 고용증가 주도 및 20대 여성 취업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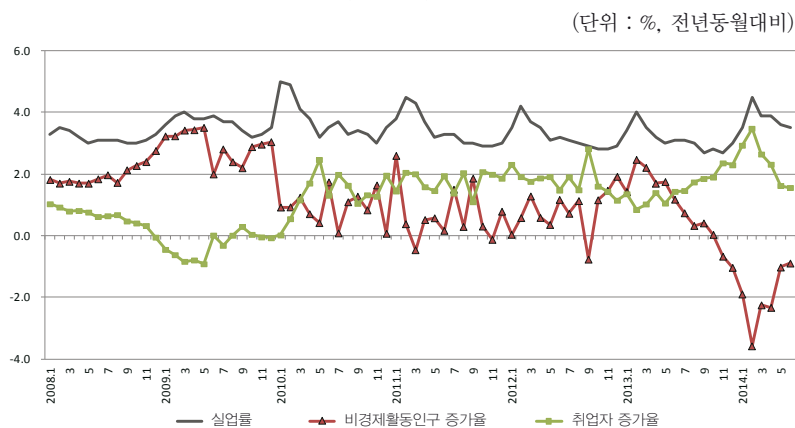
-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도 (275+205=480천 명)하는 가운데, 25~29세와 35~39세는 취업자가 감소함.
 - 그러나 25~29세와 35~39세의 취업자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이며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은 2013년 상반기 대비 증가함(표 2 참조).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각 연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감			
	연도			상반기				2014. 1~6	2012. 1~6	2013. 1~6	2014. 1~6
	2011	2012	2013	2012. 1~6	2013. 1~6	2014. 1~6					
전 체	416	437	386	449	291	597	25,352	503	545	412	
15~19세	22	4	-7	3	-8	25	246	-49	-24	-70	
20대	-58	-40	-44	-6	-95	50	3,595	-52	49	38	
20~24세	-11	89	29	83	15	73	1,326	117	147	98	
25~29세	-47	-129	-73	-89	-110	-24	2,270	-169	-98	-60	
30대	-47	-31	-21	-73	-4	-24	5,696	-112	-61	-115	
30~34세	44	79	57	56	97	10	2,897	37	66	-30	
35~39세	-91	-110	-78	-129	-100	-34	2,800	-149	-127	-85	
40대	57	11	22	18	3	67	6,675	14	37	-23	
50대	291	270	254	293	225	275	5,781	324	269	216	
60세 이상	149	222	181	214	168	205	3,358	377	274	36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연도			각 연도 상반기		
		2010	2011	2012	2012. 1~6	2013. 1~6	2014. 1~6
전 체	전 체	58.7	59.1	59.4	59.0	59.0	59.8
	15~19세	6.1	6.8	7.0	6.9	6.7	7.7
	20대	58.2	58.5	58.1	58.5	56.6	57.0
	20~24세	44.3	43.5	44.5	44.6	42.8	43.9
	25~29세	68.2	69.7	69.2	69.8	68.6	69.1
	30대	72.0	72.2	72.7	72.2	72.7	73.5
	30~34세	70.6	71.0	72.2	71.4	72.6	73.4
	35~39세	73.2	73.3	73.2	73.0	72.8	73.6
	40대	77.8	78.4	78.3	78.3	77.9	78.9
	50대	70.9	71.6	72.2	72.0	72.4	73.9
	60세 이상	36.0	36.5	37.5	36.4	37.2	37.9
남성 (여성)	전 체	70.1 (47.8)	70.5 (48.1)	70.8 (48.4)	70.5 (48.1)	70.3 (48.1)	71.0 (49.0)
	15~19세	4.7 (7.7)	5.5 (8.1)	5.7 (8.3)	5.8 (8.2)	5.7 (7.9)	6.9 (8.5)
	20대	58.2 (58.3)	58.3 (58.7)	57.3 (58.8)	57.9 (59.1)	55.6 (57.5)	55.2 (58.8)
	20~24세	38.3 (48.8)	37.2 (48.2)	39.1 (48.9)	39.2 (48.9)	37.5 (47.3)	38.3 (48.7)
	25~29세	70.0 (66.2)	71.6 (67.8)	70.4 (68.0)	71.0 (68.5)	69.6 (67.5)	69.0 (69.2)
	30대	89.5 (53.7)	89.8 (53.7)	90.3 (54.5)	89.9 (53.8)	89.9 (54.9)	90.8 (55.6)
	30~34세	87.5 (52.9)	87.9 (53.2)	89.0 (54.8)	88.5 (53.5)	88.2 (56.5)	89.5 (56.7)
	35~39세	91.2 (54.3)	91.6 (54.1)	91.7 (54.1)	91.2 (54.1)	91.8 (53.3)	92.1 (54.6)
	40대	91.2 (64.2)	91.6 (64.9)	91.7 (64.6)	91.6 (64.6)	91.5 (64.0)	92.7 (64.9)
	50대	85.0 (56.9)	85.4 (57.7)	86.3 (58.1)	86.0 (58.0)	86.1 (58.7)	87.2 (60.5)
	60세 이상	48.7 (26.3)	49.3 (26.6)	49.9 (27.9)	48.8 (26.8)	49.8 (27.5)	50.6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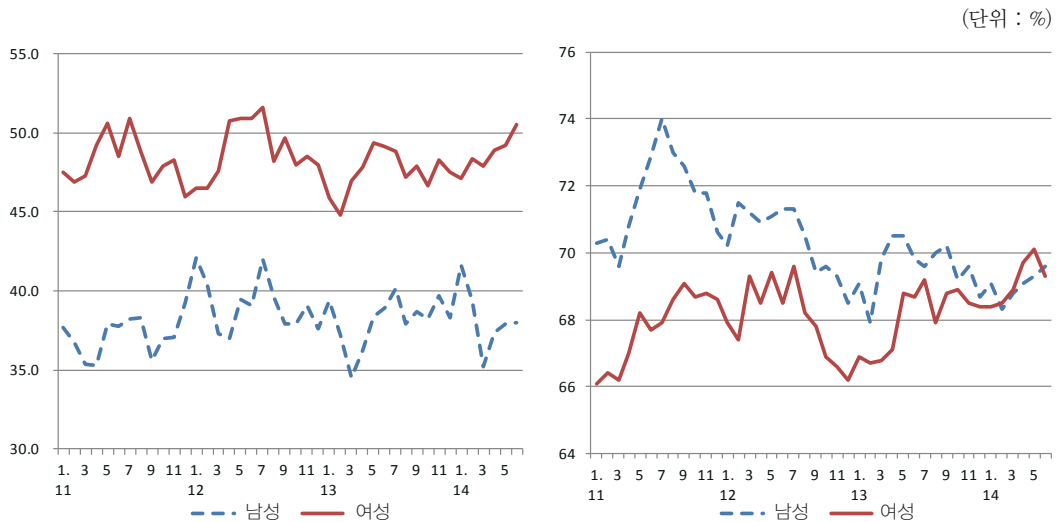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최근 들어 20대 연령층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는 추이를 보임.
 - 이러한 흐름은 여성 20대의 고용률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여성 20~24세 고용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과 조사 이래 25~29세 여성이 남성 고용률을 앞지르는 양상은 향후 20대 청년의 취업자 수나 고용률이 크게 둔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542천 명 증가와 임시직 96천 명 증가에 힘입어 598천 명이 증가함.
 -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0년 5월(770천 명)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2월(803천 명) 두 번째 최고점을 기록한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상용직이 대부분 주도함.

[그림 3] 성별 · 연령별 고용률 추이 : 좌측 20~24세, 우측 25~2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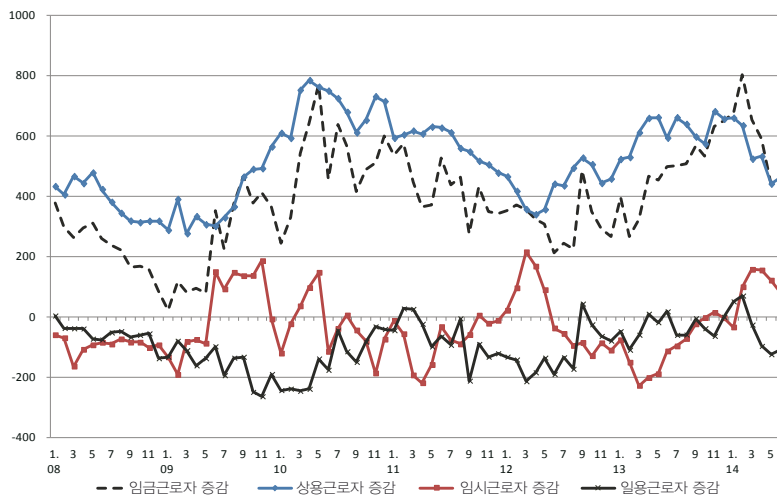
	연도별 증감			상반기 증감		
	2011	2012	2013	2012. 1~6	2013. 1~6	2014. 1~6
전 체	416	436	386	448	290	597
임금	427	315	483	320	400	598
상용직	575	436	615	395	596	542
임시직	-78	-2	-96	92	-161	96
일용직	-70	-120	-37	-167	-35	-40
비임금	-11	121	-97	129	-110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43	-39	81	-54	1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	81	-28	80	-12	-22
무급가족종사자	-12	-3	-30	-32	-44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임시근로자는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2월 99천 명 증가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용근로자는 2014년 3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3개월 연속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2천 명)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9천 명)의 증가에도 2013년 상반기 대비 1천 명 감소함.

[그림 4]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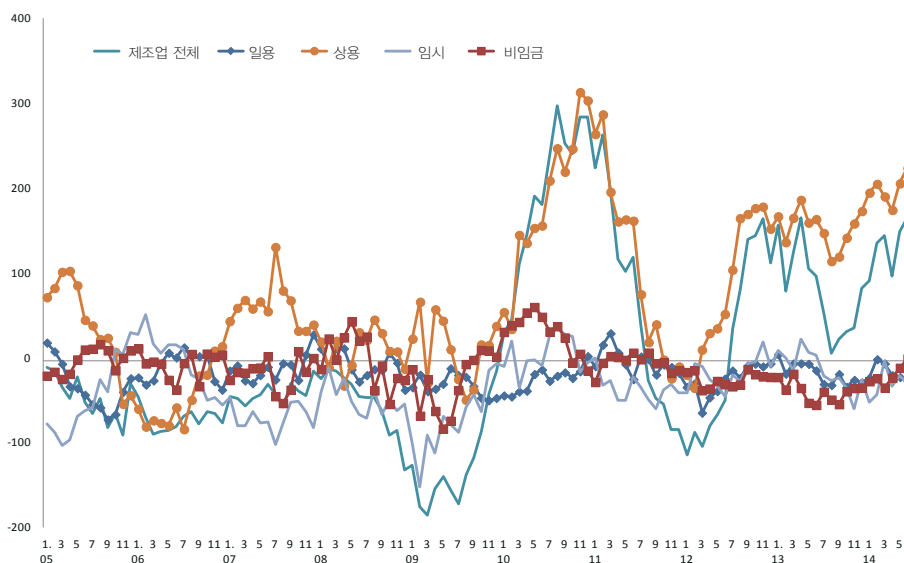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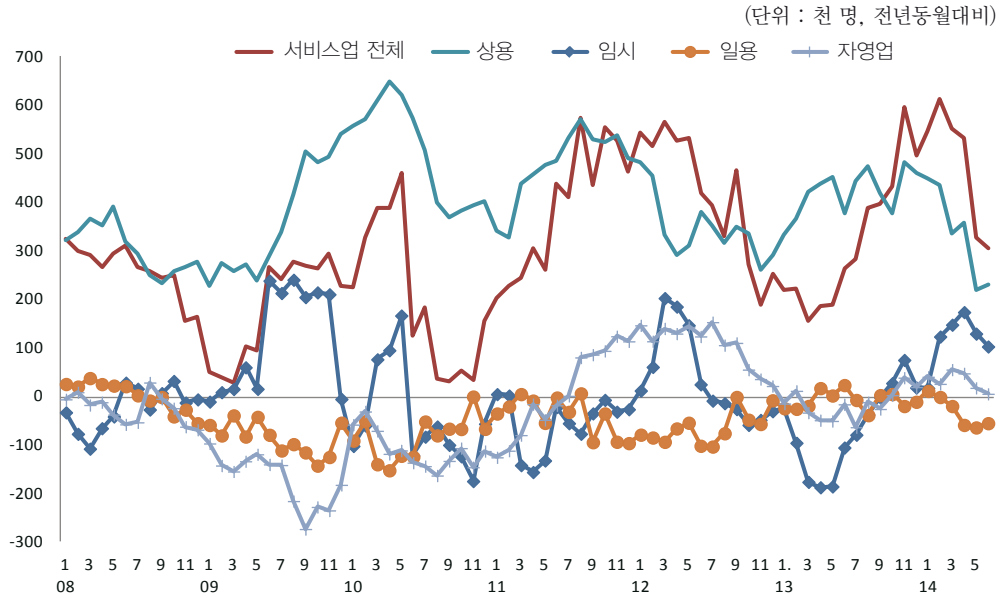
[그림 5] 제조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6] 서비스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제조업 고용증가폭 확대, 서비스업은 2사분기 들어 고용증가세 둔화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30천 명 증가함. 한편 서비스업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0천 명을 상회하는 빠른 증가를 기록했으나 올 5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됨.

- 제조업 고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제조업 생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완만히 낮아지는 추세이며, 2014년 5월 들어서는 내수와 수출이 소폭이지만 둘 다 감소함.
- 최근 3개월 제조업 신규 취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므로 상반기의 우수한 고용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2014년 상반기 중 478천 명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5월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여파로 최근 고용감소가 나타나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됨.

중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고용증가, 전체 신규채용은 감소

- 2014년 상반기 중 증가한 전체 취업자 597천 명 중 대부분인 482천 명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임.
- 대기업은 2014년 상반기에 전년 수준에 준하는 114천 명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 1년 이상 근속한 상용직 중심이었음.

〈표 4〉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2. 1~6	2013. 1~6	2014. 1~6
전 체		415	436	386	449	290	597
중소 기업	소 계	378	381	272	442	166	482
	상용직	537	355	505	355	473	422
	임시직	-80	22	-100	121	-162	100
	일용직	-68	-117	-37	-162	-36	-39
	자영업자	1	124	-67	161	-66	-11
대기업	소 계	37	55	114	7	125	114
	상용직	37	81	110	41	123	120
	(1년 이상)	11	89	110	51	135	104
	20대 연령층	15	-11	-8	-13	-17	33
	30대 연령층	-4	63	71	26	108	11
	40대 연령층	26	-2	9	2	-8	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산업별 · 사업체 규모별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2. 1~6	2013. 1~6	2014. 1~6	
제 조 업	중소 기업	전 체	76	-41	39	-89	57	71
		3개월 미만	-7	-19	-12	-25	-3	-32
		3개월~1년 미만	-12	-16	-15	-21	-13	8
		1년 이상	95	-7	66	-43	74	96
	대기업	전 체	-13	55	41	5	63	58
		3개월 미만	-4	-2	3	-6	2	-2
		3개월~1년 미만	2	-4	4	-7	0	8
1년 이상	-11	61	34	18	61	52		
서 비 스 업	중소 기업	전 체	329	417	256	511	158	417
		3개월 미만	-47	-45	-43	27	-94	3
		3개월~1년 미만	-58	67	-32	36	-57	14
		1년 이상	434	395	331	448	309	399
	대기업	전 체	57	-1	62	4	47	62
		3개월 미만	4	-17	3	-22	-4	-5
		3개월~1년 미만	24	-11	-9	-5	-16	15
1년 이상	29	28	67	32	67	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14년 상반기 중 모든 사업체 규모 ·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신규채용(근속기간 3개월 미만)은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서만 소폭 증가함.
- 제조업 신규채용은 중소기업(-32천 명)과 대기업(-2천 명)에서 모두 감소한 반면, 1년 이상 근속자의 취업은 증가함.

〈표 6〉 2014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 천 명)

	2013			201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2.4	3.5	3.0	3.8*	3.8	3.8
생산가능인구	41,985	42,207	42,096	42,397	42,617	42,507
경제활동인구	25,614	26,132	25,873	26,356	26,630	26,493
경제활동참가율	61.0	61.9	61.5	62.2	62.5	62.3
취업자	24,755	25,378	25,066	25,352	25,730	25,541
(증가율)	1.2	1.9	1.6	2.4	1.4	1.9
(증감수)	291	481	386	597	352	474
실업자	859	755	807	1,004	900	952
실업률	3.4	2.9	3.1	3.8	3.4	3.6
고용률	59.0	60.1	59.5	59.8	60.4	60.1
비경제활동인구	16,371	16,074	16,223	16,041	15,988	16,014

주 :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2014년 하반기 취업자 수, 352천 명 증가
 예상(연간 474천 명)**

- 2014년 2사분기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6%(속보치 기준)로 1사분기 3.9%에서 소폭 둔화됨.
 - 한국은행(2014년 7월)은 세계 경기 회복세 조정과 내수부문의 변동을 반영하여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함(하반기 3.8% → 3.8%).
 - 지난 2012년 3사분기 중 0.985까지 상승하였던 고용탄력성은 이후 하락하여 2014년 2사분기 들어서는 0.509 수준으로 낮아짐.

- 2014년 하반기 고용사정은 민간소비의 회복 시기와 수출 증가에 따른 제조업 활동의 추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하면 상반기와 같은 비교적 높은(597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8%라는 전제하에, 하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동기대비 352천 명으로 연간 474천 명(연간증가율 1.9%)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됨.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02-3775-559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